

2025학년도 1학기

규장각 세미나

학술 논문 자료집

1. 수원화성 건축의 의미 - 왕권과 효심 2p
2. 신미양요 전후 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책기조와 두 나라간
외교 관계의 변화 12p
3. 강화 산성에 관한 고찰 - 역사적 의미와 군사적 요충지
로서 기능을 중심으로 - 31p

수원화성 건축의 의미 - 왕권과 효심

이서연 (역사교육과 3학년)

- 목차 -

I. 서론

II. 본론

1. 수원화성의 개요
2. 영조시기의 국정
3. 임오화변
4. 임오화변 이후 국정과 정조에 대한 심리학적 고찰
5. 수원화성의 건축 이유
 - 1) 사도세자 추숭 정책
 - 2) 정치적 · 행정적 역할
6. 수원화성의 군사적 기능

III. 결론

*참고문헌

I. 서론

수원화성은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효심이 근본이 되어 수도를 옮길 계획과 함께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면서 축조하기 시작하였다. 그렇다면 수원화성은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효심을 표출하기 위해서만 축조되었을까?

조선 후기, 특히 영조와 정조 시기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 시기였다. 이 시기의 주요 정치적 특징은 붕당정치 완화를 위한 탕평정치의 실행이었다. 붕당끼리의 대립이 강해질수록 정치적 불안정성을 야기하였고 이에 대한 정치체제였던 탕평정치는 영조와 정조가 추구한 정치적 안정과 국가 발전을 위한 균형 잡힌 정책이었으며, 이를 통해 붕당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자 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조는 수원 화성의 건축을 통해 새로운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다. 수원 화성은 단순히 군사적 요새의 의미를 넘어, 정조가 구현하고자 했던 새로운 국가의 모델을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선 후기 정치사의 중요한 사건인 붕당정치와 탕평정치 그리고 임오화변을 중심으로 정조의 국정운영 방향과 수원 화성의 건축 이유를 탐구하려 한다. 이를 통해 정조가 정치적, 사회적 안정과 국가 발전을 위해 어떠한 방안을 모색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원 화성이 차지하는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II. 본론

1. 수원화성의 개요¹⁾

화성은 조선왕조 제22대 정조대왕이 선왕인 영조의 둘째왕자로 세자에 책봉되었으나 당쟁에 휘말려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뒤주속에서 생을 마감한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침을 양주 배봉산에서 조선 최대의 명당인 수원의 화산으로 천봉하고 화산부근에 있던 읍치를 수원의 팔달산아래 지금의 위치로 옮기면서 축성되었다.

수원화성은 정조의 효심이 축성의 근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쟁에 의한 당파정치 근절과 강력한 왕도정치의 실현을 위한 원대한 정치적 포부가 담긴 정치구상의 중심지로 지어진 것이며 수도 남쪽의 국방요새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수원화성은 규장각 문신 정약용이 동서양의 기술서를 참고하여 만든 「성화주략(1793년)」을 지침서로 하여, 재상을 지낸 영중추부사 채제공의 총괄아래 조신태의 지휘로 1794년 1월에 착공에 들어가 1796년 9월에 완공하였다.

수원화성은 축성시의 성곽이 거의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을 뿐 아니라, 복수문(화홍문)을 통해 흐르던 수원천이 현재에도 그대로 흐르고 있고, 팔달문과 장안문, 화성행궁과 창룡문을 잇는 가로망이 현재에도 도시 내부 가로망 구성의 주요 골격을 유지하고 있는 등 200년전 성의 골격이 그대로 현존하고 있다.

축성의 동기가 군사적 목적보다는 정치·경제적 측면과 부모에 대한 효심으로 성곽 자체가 "효"사상이라는 동양의 철학을 담고 있어 문화적 가치외에 정신적, 철학적 가치를 가지는 성으로 이와 관련된 문화재가 잘 보존되어 있다.

1) 지역N문화 역사문화유산 선조들의 발자취 성화 옛도로 - 수원화성, 화성의 도시 기반시설

수원화성은 중국, 일본 등지에서 찾아볼 수 없는 평산성의 형태로 군사적 방어기능과 상업적 기능을 함께 보유하고 있으며 시설의 기능이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실용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동양 성곽의 백미라 할 수 있다.

2. 영조시기의 국정

17세기 후반은 봉당간의 대립이 표면화되었던 시기로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국왕은 강력한 왕권을 추구하게 되었다. 숙종대 ‘환국’이 그것이라 할 수 있다. 환국은 봉당을 자주 교체하는 방식을 통해 신하들의 충성심을 경쟁시키고 왕권을 강화하는 정국 운영의 방식이었다. 그러나 18세기 전반에 이르면 봉당간의 갈등이 충역(忠逆)의 시비로 비화되어 결국은 피비린내 나는 옥사를 야기하였다. 그 결과 당을 막론하고 많은 사상자가 속출하였고, 혼란스러운 정국이 지속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즉위한 영조는 봉당간의 대립에 심각성을 인지하며 강력한 왕권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경종이 4년 만에 죽음을 맞으면서 왕이 된 영조가 가장 먼저 숙청하기 시작한 것은 소론, 그 중에서도 자신을 죽이려 든 소론의 강경파였다. 이 때 영조는 소론의 거두 김일경을 탄핵하는 상소를 계기로 소론(준론)을 일부 숙청한다.

영조는 노론을 재집권시켰지만 노론은 사실상 영조에게 아첨해서 정권을 유지했어야 할만큼 영조는 그들의 속셈을 알고 있어 탕평책이라는 이름으로 강력한 왕권을 구축했다.²⁾ 그런데 남인 이인좌가 소론 강경파와 남인을 규합하여 거대 규모의 반란을 일으키니 이것이 바로 이인좌의 난이다. 소론 강경파와 남인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반란은 서울, 삼남, 서북에서 동시다발로 치고 내려오는 대규모였다.

한편 영조는 선조 시절부터 봉당을 주도하고 조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림 세력들에 대한 정리를 시작하였고 사림과 봉당의 근원지라 할 수 있는 서원을 감소시키는 한편, 사림 출신의 관직 등용을 줄였다. 그 바람에 숙종 시절만 해도 영향력이 강했던 전통적인 사림들은 설 자리를 잃었다. 그 덕분에 지방 사림 출신들이 줄어가는 반면, 서울(한성)과 경기 출신에게 관직이 많이 주어져서 이후에는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한 관직 독주가 이어지게 되었다.

영조의 탕평 정치는 봉당간 대립을 완화시키고 당파간 의리론의 대결 풍조를 국사의 확정으로 종식시키는 등 뚜렷한 성과를 이룩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군주의 의리 독단과 척신 권력의 비대화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다.³⁾

3. 임오화변

임오화변은 조선왕조 오백여 년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된 사건으로 1762년 사도세자 이 선이 뒤주에 갇힌 후 팔일만에 스물여덟살의 나이로 사망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원인으로 당시와 후대의 기록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

2) 영조는 삼수의 옥을 뒤집어 자신을 위해 죽은 노론들을 신원하고 여러 소론들을 내쫓고 노론 정권을 세운 다음에 과거는 잊자고 하였으나 4대신을 비롯한 거물들이 때죽음당해 이를 갈고 있던 노론 강경파 정호, 민진원 등은 협상은 없다고 선포하며 소론들을 모두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3) 수원시정연구원, (2015). <‘정조의 임오의리’와 국정운영>

하고 만들어왔다. 사도세자의 비극이 그 시대 치열한 당쟁의 희생물이었다고도 하고, 탕평책으로 정국의 안정을 도모하던 영조와 개혁적인 사도세자 간의 정치투쟁의 결과라는 견해도 있다. 또한 정치적 이유보다는 사도세자의 치료될 수 없었던 광증이 그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라며 비극의 원인에 대해 갑론을박한다.⁴⁾

총 구 일에 걸쳐 진행된 참혹한 임오화변에 대해 먼저 왕조의 공식 사료인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면, 가능하기조차 어려운 참변의 무게와는 대조적으로 사도세자를 뒤주에 감금한 날과 팔일 후 사도세자가 사망한 날에 단 세 개의 기사만이 실록에 남아있다. 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감금한 당일 두 개의 기사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있다.

"왕세자가 대명하다"

"세자를 폐하여 서인으로 삼고, 안에다 엄히 가두다"⁵⁾

위의 두 번째 기사에는 임오화변의 배경과 발생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세자가 대리청정을 한 후부터 질병이 생겼고, 그의 나이 스물세 살 이후부터는 병이 악화되어,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세자의 만행과 역모에 관한 나경언의 고변 후부터 영조가 폐하기로 결심하였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던 차에, 유언비어가 돌아 임금의 마음이 놀랐다. 이에 영조가 자결할 것을 명하였으나, 세자가 용서를 빌었고 조아린 이마에서 피가 나왔다. 영조가 칼을 들고 세자의 자결을 재촉하니, 세자가 자결하고자 하였는데 여러 신하들이 말렸다. 영조는 이어서 세자의 지위를 폐하고 서인을 삼는다는 명을 내렸다. 세자가 곡하면서 땅에 엎드려 애걸하였다. 세자를 깊이 가두라고 하자, 세손⁶⁾이 황급히 들어와 아버지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빌었다. 그러나 임금이 세손의 청을 물리치고, 빈궁과 세손을 흥봉한⁷⁾의 집으로 보내라고 명하였다.

그리고 사도세자가 사망하는 날까지 『조선왕조실록』에는 세자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다. 사도세자가 공식적으로 사망한 날에 다른 국정 기사와 함께 "사도세자가 홍서하다. 왕세자의 호를 회복하다"⁸⁾라는 한 줄의 기사만이 사도세자의 운명을 알려줄 뿐이다. 기사에는 영조가 부자간 삼십여 년의 정과, 세손의 마음을 생각하여, 세자를 복위하고, 시호를 '생각할사, 슬퍼할 도'라는 뜻의 사도세자라 명하고, 장례 절차에 대한 지시만을 내렸다는 설명이 따른다.

조선왕조의 다른 공식적 기록인 『승정원일기』에 실린 임오화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정조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 정조가 즉위하기 직전인 1776년에 공식적으로 삭제되었다. 따라서 조선의 공식적 기록으로는 임오화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어

4) 서정미, (2016). <임오화변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고찰-영조, 사도세자, 정조의 대상관계를 중심으로>

5) 『영조실록』99권, 영조 38년 윤5월 13일을해

6) 정조

7) 혜경궁 홍씨의 아버지

8) 『영조실록』99권, 영조 38년 윤5월 21일계미

떤 일이 실제로 발생했는가라는 상세한 배경과 진실에 접근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한중록』의 기록에 따르면 "1762년 경모궁의 죽음은 천고에 없는 변이라"라는 문장으로 시작된다. 이어 혜경궁 홍씨는 남편의 죽음을 둘러싼 여러 소문들이 사실이 아니며, 사도세자의 병환이 너무나 깊어, 영조가 종사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내린 결단으로 그 내막을 자세히 알리고자 이 글을 쓴다고 분명하게 밝혔다.⁹⁾

사도세자가 스물여덟 살이던 1762년 5월 22일 나경언이 세자에 관한 망극한 상소를 올리자 영조가 나경언을 직접 심문한 후 세자를 경희궁으로 불러서 이에 대해 물었다. 이후 나경언은 사형을 당하지만 화병이 극에 달한 사도세자가 수로를 통해, 칼을 들고 영조의 처소였던 경희궁을 가려고 시도하였다. 이를 두고 "소문들이 낭자하니"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궁궐에서 사도세자가 영조를 죽이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음을 의미한다.

비극의 날인 윤5월 13일 아침, 사도세자의 친모인 선희궁이 영조를 찾아가 읍소하며 "동궁의 병이 점점 깊어 바랄 것이 없으니, 소인이 차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정리에 못 할 일이나, 옥체를 보호하고 세손을 건져 종사를 평안히 하는 일이 옳사오니, 대처분을 하소서"¹⁰⁾라고 고하였다. 사도세자는 영조가 창덕궁으로 향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혜경궁 홍씨에게 자신을 보러 오라고 요청한 후 자신의 운명을 예감한 이야기를 그녀에게 하였다.

마침내 영조의 호출령이 내리고, 세자가 휘령전으로 나아가니, 영조는 "좌정하시고 칼을 안고 두드리시며 그 처분을 하시니라."라며 세자의 자결을 명하였음을 적고 있다. 오후 세시 즈음에 쌀 담은 뒤주를 내라는 명이 드디어 내려졌다. 세손이 휘령전으로 들어가 아비를 살려달라며 애원하나 영조는 듣지 않고 나가라 명령하였다. 사도세자는 칼을 들어 목숨을 끊으려 하였으나 옆에서 신하들이 말려서 실패하자, 영조에게 눈물로써 용서를 빌었다. "아버님, 아버님, 잘못하였으니, 이제는 하라하시는 대로 하고, 글도 읽고 말씀도 들을 것이니, 이리 마소서"¹¹⁾하며 애원하였으나 결국은 뒤주에 들어가게 되었다. 세자를 폐위하여 서인으로 만들었으니, 휘령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지켜보던 혜경궁 홍씨 역시 궁궐에 머물 곳이 없어 세손과 함께 친정집으로 가게 되었다. 이것이 사도세자의 아내로 가장 가까이에서 사건을 지켜 본 혜경궁 홍씨의 기록이다.

그녀는 사도세자가 아무런 병증이나 죄도 없는데, 영조가 그를 미워하여 죽였다는 세간의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며 영조의 잔인한 처분을 옹호하였다. 그녀는 다시 한번 사도세자의 죽음은 그의 돌이킬 수 없는 병증으로 인한 것으로 애통하지만 영조가 조선 왕실의 종사를 위하여 어쩔 수 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임오화변에 대한 결론

9) 사도세자의 탄생부터 순차적으로 이야기가 이어지는 『한중록』에서 혜경궁 홍씨는 사도세자의 병증과 갖가지 기행이 끝을 모르고 점점 더 악화되어 가던 중에 발생한 나경언의 고변 사건을 임오화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았다.

10) 이를 들은 영조가 경희궁에서 세자가 있는 창덕궁으로 나서는데, 나쁜 일이 있을 때 그가 사용하는 문인 경화문을 통해 창덕궁으로 들어왔다. 혜경궁 홍씨는 이 때 이미 영조가 사도세자의 처분을 결심하고 왔음을 직감하였다는 것을 암시한다.

11) 『한중록』

을 내렸다.¹²⁾

4. 임오화변 이후 국정과 정조에 대한 심리학적 고찰

임오화변 이후 조선의 국정은 탕평파가 기득권세력으로 변질되었다. 또한 영조가 나이가 많아 임오화변 이전부터 치매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된다. 영조는 말년에 몇주 또는 몇일 마다 영의정의 갈아치우는 등의 외골수 적이고 변덕스러운 행보를 이어갔으며 해가 지날수록 척신, 환관 등이 정치에 개입을 하기 시작하였다. 세손이었던 정조는 효장세자의 양자로 입적하여 세자로 즉위를 하게 되고 영조 사후 정조가 왕위에 오르게 된다.

정조는 왕위에 오르며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¹³⁾라고 선포하였다. 그 누구도 입에 담지 못하던 이름을 즉위식에서 모든 이들에게 공개한 것이다. 이러한 모습에서 정조에 대해 거짓자기적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고 한다.¹⁴⁾ 임오화변의 과정에서 정조의 상황을 정신분석학적으로 보았을 때 정조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거짓자기¹⁵⁾로 자신을 방어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본다. 사도세자의 아들임을 부정한 채, 돌아가신 큰아버지 효장세자의 양아들의 신분으로, 거짓자기로 살아가는 덧은 정조에게 공허감과 허망감을 안겼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자신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신하들, 마지막 순간에는 아버지를 배신한 어머니와 외가, 그리고 변덕이 심한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버렸듯이 언제든지 자신도 내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은 늘 정조를 옥죄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따라서 모든 신하들 앞에서 만천하에 자신이 누구인지 선포함으로써 해방감과 치유적 효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조는 아버지에게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십 오년간의 통치기간 동안 끊임없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복권을 위해 노력하였다.

5. 수원화성의 건축 이유

1) 사도세자 추송 정책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죄책감과 효심을 가지고 사도세자의 복권을 위해 재위기간 동안 노력하였다. 개인적으로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이었지만 국왕으로서는 왕실 종사를 위태롭게 한다는 혐의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이는 지난 날 사도세자의 처형에 관여했던 자들의 총역 시비를 불러와 당쟁으로 격화될 소지도 있었다. 자칫 국왕의 개인적 재난의 극복이 또 다른 공적 재난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정조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이는 사도세자의 추송을 위해서 사도세자의 사당과 무덤을 승격이 가장 중심에 있는데 즉위해에 정조는 사도세자의 사당을 ‘수은묘’에서 ‘경모궁’으로 묘소는 ‘수은묘’

12) 서정미, (2016). <임오화변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고찰-영조, 사도세자, 정조의 대상관계를 중심으로>

13) 『정조실록』1권, 정조 즉위년 3월 10일 신사 4번째기사

14) 서정미, (2016). <임오화변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고찰-영조, 사도세자, 정조의 대상관계를 중심으로>

15) 참 자기의 부재 또는 일반적으로 분열적 개인에게서 볼 수 있는 참 자기가 숨어 있거나 덮여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에서 ‘영우원’으로 이름과 격을 달리하였다. 이는 영조의 ‘궁원제’¹⁶⁾에서 착안하였다. ‘경모궁’은 ‘수은묘’자리에 그대로 위치하되 높아진 격식에 맞추기 위해 즉시 개건되었다.¹⁷⁾

정조는 1789년 원래 양주 배봉산에 있던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으로 이장하고 현릉원이라 이름하였다. 이를 이장하기 위해 건설한 것이 수원화성이며 이는 과연 사도세자의 추송을 위해서만 건설되었을까?

2) 정치적 · 행정적 역할

정조는 화성을 조선의 제2 도시로 조성하고자 여러 가지 행정적 조치를 취하였다. 1793년 1월에 ‘수원부’를 ‘화성유수부’로 승격시켰다. 1794년 1월부터 1796년 9월 사이에는 행궁을 둘러싸는 5.7km에 달하는 성곽을 건설하고 도시기반 시설도 새롭게 조성했다. 정조는 화성을 건설하면서 도시기반과 저수지, 둔전을 만들어 생산기반 시설도 완비하였다. 뿐만 아니라 도시조경도 중요시 여겨 도로변에 수많은 나무를 심었다.¹⁸⁾

정조는 읍치의 이전과 읍치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 등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 경기관찰사에 서유방, 수원부사에 조심태를 임명하였다. 정조는 화성을 조선의 제2 도시로 조성하고자 여러 가지 행정적 조치를 취하였다. 한편 상업 부흥시키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는데 수원부사 조심태는 새 고을에 점포를 설치하는 일에 대해 본고장 백성들 중 살림 밑천이 있고 장사물정을 아는 사람을 골라 읍 부근에 자리 잡고 살게 하면서 이자 없는 돈 6만 냥을 빌려주자는 상업진흥책을 내놓았다. 수원 사람 중에서 이자 없는 돈을 꾸어 주어 장사 밑천으로 삼게 하여 상권을 진흥시키려는 정책이었다.

정조는 화성을 자급자족적인 도시로 성장시키고자 농업생산기반 시설을 건설하였다. 제일 먼저 1795년에는 만석거를 조성하고 이 저수지를 활용하여 대유둔을 조성하였다. 정조는 농민들의 이로움으로 수리(水利)만 한 것이 없다며 만석거를 만들기 전까지는 황폐한 땅이었었는데 이제는 가뭄에도 풍년을 이루었음을 기뻐하였다. 이에 따라 1798년 4월에는 현릉원 남쪽에 만년제¹⁹⁾를 완성하였고 1799년에는 만석거보다 규모가 3배 정도 더 큰 축만제²⁰⁾를 건설하였다. 이 수리시설로 서둔을 조성하고 각종 과학영농으로 둔전을 일구어 여기에서 수확한 농산물은 화성을 유지 보수하는 비용으로 활용되었다. 화성 성내에 관청과 상가 민가를 조성하고 생산기반 시설은 성 밖의 북쪽과 서쪽에 거대하게 조성한 것이다.

이는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천봉함과 더불어 수원을 제 2의 도시로 건설하고자 정치, 행정적 조치를 취했다는 것과 이를 통한 정조가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고

16) 국왕 사친의 사당과 무덤을 묘묘(廟墓)에서 궁원으로 높여 왕권과 왕실의 지위를 안정되게 유지하고자 제정한 제도.

17) 유재빈, (2017). <아버지에 대한 기억의 지도 - 정조의 사도세자 추송 작업과 사적도>

18) 지역N문화 역사문화유산 선조들의 발자취 성화 옛도로 - 수원화성, 화성의 도시 기반시설

19)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에 있는 조선시대의 저수지. 1996년 7월 23일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2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조선후기 에 축조된 저수지.

자 하였던 것으로 본다.

6. 수원화성의 군사적 기능

수원화성은 평지와 신지가 조화를 이루는 지형에 위치하기 때문에 방어에 유리하였고, 성곽의 총 길이는 5.74km이며 높은 성벽과 여러개의 방어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어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방어선이 되었다.

수원화성에서 군사적 시설의 중심지는 ²¹⁾동장대로 동장대는 주로 군사 훈련과 지휘를 위한 장소였다. 연무대²²⁾라는 이름은 ‘군사 훈련의 광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왕과 군사 지도자들이 군사 훈련과 전략을 구상하던 공간이었다. 이는 군의 지휘소 역할도 하였으며 당시 화성의 방어와 군사력 강화의 핵심적인 장소로 장용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또한, 동장대는 수원화성 내 다른 군사시설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화성의 방어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정조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한 탕평정책 추진하였다. 강력한 왕권을 위해서는 그를 뒷받침하는 군사력은 필수적이었는데, 군사력 확보를 위해 정조는 자신의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별도로 설치하고 그 군대를 주둔시키기 위한 곳으로 수원 화성을 활용하였다. 장용영은 서울 근교의 수원 화성에 주둔하면서 필요시 언제든지 국왕에게 동원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따라 수원화성이 전쟁 상황에 대비한 군사적 기능을 하였다 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정조가 수원화성을 건설하고자 한 이유에 대해 조선 후기 영조, 정조 시기의 국정과 임오화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수원 화성은 단순히 성곽 건축물로서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조가 꿈꾸었던 개혁과 이상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정조는 자신의 아버지인 사도세자를 기리기 위해 수원 화성을 건설했을 뿐만 아니라, 왕권을 강화하고 새로운 도시 건설을 통해 조선의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수원화성은 건축적으로는 당시 최고 수준의 군사 요새로 설계되어 방어시설과 성곽의 정교함이 돋보이며, 정조의 정치적 이상과 왕권 강화를 위한 상징적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역사적으로는 정조의 탕평정치와 정치적 안정, 국가 발전을 위한 중요한 거점으로서, 당시 조선의 정치적·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유산이다. 결과 수원은 당시 경제, 군사, 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었고, 화성은 이러한 정조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건축물이 되었다.

수원 화성이 1997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그 국제적 가치는 더욱 인정받았다. 이는 수원 화성이 단순한 지역적 가치에 그치지 않고,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받았음을 의미한다. 수원 화성의 등재는 건축적 혁신, 문화적 중요성, 역사적 맥락이 결합된 결과로, 전 세계에서 한국의 문화유산을 공유하고 보존하려는 노

21) 연무대라고도 불린다.

22) 무예를 단련하는 곳. 조선 시대에, 주로 군사를 훈련하고 사열하는 데 쓰였다.

력의 일환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수원 화성의 진정한 의미를 더욱 널리 알리고, 그 가치를 많은 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단지 과거의 유산을 보존하는 것을 넘어,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으로서 수원 화성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세계와 공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수원 화성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그 역사적·문화적·건축적 가치를 전달하고, 글로벌 문화유산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서적 및 문헌

- 1) 『영조실록』
- 2) 『정조실록』
- 3) 『한중록』
- 4) 백민정, (2012). <역사적 권력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 : 「권력과 인간: 사도세자의 죽음과 조선 왕실」, 정병설 저 <서평>>
- 5) 변태섭, (1993). 한국사통론. 삼영사.
- 6) 수원시정연구원, (2015). <‘정조의 임오의리’와 국정운영>
- 7) 서정미, (2016). <임오화변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고찰-영조, 사도세자, 정조의 대 상관계를 중심으로>
- 8) 유재빈, (2017). <아버지에 대한 기억의 지도 - 정조의 사도세자 추승 작업과 사 적도>

2. 사이트

- 1) 우리역사넷 : <https://contents.history.go.kr/front>
- 2) 한국민족대백과사전 : <https://encykorea.aks.ac.kr/>
- 3) 지역N문화 : <https://www.nculture.org/man/main.do>

신미양요 전후 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책기조와
두 나라간 외교 관계의 변화

학 과	역사교육과
학 번	20223081
제 출 날 짜	2025. 2. 24.
이 름	전 인 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19세기 초중반 조선의 대내외적 상황
2. 미국의 대 동아시아 정책
3. 신미양요 이전 조선과 미국의 관계
4. 신미양요 시기
5. 조미 수호통상조약의 체결
6. 수교 이후 양국의 외교관계

III. 결 론

IV. 참 고 문 헌

I. 서론

21세기 전반기인 현재, 한국에게 있어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를 꼽는다면 미국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과거 냉전시기에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굳건한 우방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던 국가가 바로 미국이었고, 탈냉전과 국제관계의 다극화 속에서 한중수교로 중국과의 관계가 강화되고, 동남아나 유럽연합, 중앙아시아 등의 지역과의 비중 증가 등의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한국에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국가를 말할 때 미국은 그 지위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미국과 한국이 언제부터 관계를 맺게 된 것일까? 한국과 미국이 처음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40 여 년 전의 일이다.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의 체결로 두 나라는 정식으로 수교하게 되었다. 이는 당시 조선이 서양국가와 맺은 최초의 조약이자 외교관계의 수립이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후 일본의 국권피탈로 양국관계는 단절되지만, 광복 이후 남한에 미군이 진주하고 군정을 시작하면서 두 나라는 다시금 인연을 맺게 된다. 미국은 한국전쟁 당시 함께 한 우방국이었고, 종전 후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과 함께 지금까지 한국의 안보에 있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이다. 또한, 한국에게는 중국, 일본과 함께 가장 큰 교역규모를 차지하는 나라가 미국이고, 양국간 교류는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한국에게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위를 갖는 미국이란 나라와의 초기 관계는 어떠했을까? 한미 두 나라가 처음으로 접촉한 것은 19세기의 일이다.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달성한 뒤 국가의 발전을 거듭하면서 19세기 경 조선과 첫 접촉을 하게 된다. 그리고 신미양요와 같은 무력충돌도 있었고, 1882년 수교하면서 조선을 공식적으로 국가로 인정한 나라였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1905년 을사조약 체결 이후 즉각 조선과 단교한 나라이기도 하다. 그리고 광복 이후에는 다시금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국가가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미국과 조선과의 초기 관계변화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국교수립 이전의 접촉에서부터 신미양요를 거치면서 나타나는 양국관계의 변화, 그리고 수교 이후 1910년 국권피탈 시기까지의 양국관계를 조명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한국에게 가장 중요하고 밀접한 국가인 미국과의 초기 관계를 살펴보고, 근대화의 격변의 시기 미국이 조선에 어떠한 존재였는지, 또 미국은 조선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미국과의 초기 관계를 이해하고 그 의미를 찾아보는 일은, 현재의 한미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먼저 19세기 조선의 국내외적 상황을 살펴보려 한다. 그리고 당시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에 대하여 취하고 있던 정책을 알아 볼 것이다. 이를 토대로 조선과 미국의 상황을 파악한 뒤, 양국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해 나갔는지 그 과정을 언급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19세기 초중반 조선의 대내외적 상황

(1)국내적 상황

19세기의 조선은 영조와 정조 재위기의 비약적 발전 이후 순조, 헌종, 철종으로 이어지는 시기였다. 이 시기 중앙정계는 특정 가문이 권력을 행사하는 소위 세도정치가 시행되던 때였다. 당시 이들 특정 가문의 권력 남용으로 인해 국정이 어지러워지고, 삼정의 문란 등으로 백성들의 생활은 어려움을 겪는 시기였다. 아울러, 조선 후기 이후 지속되어 온 신분질서의 동요, 민중의식의 성장과 더불어 서구문물의 유입, 천주교의 전래, 새로운 사상의 유행 등으로 사회가 다소 유동적으로 움직여 가던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다. 1811년의 홍경래의 난이나 1862년 임술농민봉기 등은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하겠다. 철종이 후사 없이 승하한 뒤, 흥선군 이하응의 아들이 고종으로 즉위하면서, 어린 임금을 대신하여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하게 된다. 흥선대원군은 외국과의 통상을 거부하는 이른 바 통상수교거부정책(쇄국정책)을 펴 나가게 된다.

(2)국외적 상황

산업혁명으로 근대화를 이룬 서구열강은 원료공급지와 상품의 시장을 찾아 아시아나 아프리카 등의 지역으로의 진출을 기도하는데, 이는 민족주의와 연결되어 제국주의로 나아가게 되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동아시아 지역도 영국, 프랑스를 필두로 한 서구 열강들의 침략에 서서히 잠식되어 가고 있었다. 1842년 난징조약으로, 그리고 1858년 미일수호통상조약으로 중국과 일본이 차례로 개항하고, 조선에는 이양선이라 불리는 서양의 배들이 출몰하는 일이 빈번해 지던 시기이다. 그리고 1860년 베이징조약으로 러시아가 연해주를 차지하게 되면서 조선은 두만강을 경계로 러시아와도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주변의 변화는 조선으로 하여금 서양 국가들의 접근에 대해 위기 의식을 갖게 하는 측면이 있었으며, 아울러, 청이 영국 등의 서양국가에게 패해 문호를 개방하게 되고, 수도인 베이징마저 함락당하는 사건은 중화질서에 익숙한 조선인들에게 큰 충격과 함께 세계관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2. 미국의 대 동아시아 정책

(1)미국의 대외 팽창의 배경

미국은 1776년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한 뒤, 1783년 파리조약을 통해 그 독립을 승인받게 되었다. 공화제와 삼권분립을 기반으로 탄생한 미국의 초기 정책은 고립주의였으나¹⁾, 유럽의 간섭을 배제한 채 내부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다. 대외적으로

고립주의를 표방하면서 대내적으로는 내적 팽창을 추진하여 서부로의 진출과 개척으로 이어지고, 태평양 지역의 진출로 사실상 마무리된 내적 팽창은 이후 외적인 팽창으로 전환하게 되었다.²⁾ 미국의 대외적 팽창의 토대를 제공한 것은 남북전쟁을 통해 이룩할 수 있었던 산업화였다. 남북전쟁 시기 연방정부가 단행한 정치적 변혁과 제도화의 개혁조치는 경제부문의 산업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였고, 그로 인해 미국의 경제는 급속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으며, 남북전쟁은 군사강국으로 변모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게다가 시어도어 루스벨트, 알프레드 매헌, 헨리 로지 등으로 대표되는 팽창주의 정책을 주장한 지식인과 정치가의 존재 역시 미국의 대외팽창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2)미국의 대외 진출

미국은 향상된 국력을 바탕으로 태평양, 동아시아 지역으로의 진출을 실행하게 되는데, 1854년 일본을 개항시킨 일과 1898년 미서전쟁을 통해 필리핀을 세력권에 두게 된 일, 그리고 괌과 사이판 점유 등이 그 예이다.

(3)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기조

미국이 아시아 여러 나라와 통상관계를 고려하게 된 것은 아편전쟁 전후기부터이다. 유럽 열강의 중국 침략이 본격적으로 벌어지면서부터 미국은 아시아 국가와의 수교문제를 대외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미국은 1844년 미청간에 조약을 체결하여 중국의 문호를 개방한 후, 통상의 범위를 일본과 한반도에까지 확대하려고 시도하게 된다. 그리고 1845년 프래트 의원에 의해 제출된 「미국통상연장: 일본 및 조선에 대한 통상사절 파견안」은 당시 미국의 정책을 보여주는 좋은 근거이다. 이 결의안은 당장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1853~54년 페리제독의 일본원정을 통해서 비로소 실현되기에 이른다. 미국은 한반도에까지 통상무역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선과의 교섭을 모색하지만, 조선의 강력한 불교섭, 쇄국정책으로 인해 쉽게 진전되지 못하는 와중에 1866년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미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되고 이후 조선의 개항을 목표로 한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3.신미양요 이전 조선과 미국의 관계

(1)최초의 한미접촉

조선과 미국의 최초 접촉은 1853년 1월 미국 포경선 한 척이 조선에 표도해 온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동래부사가 이 배에 문정관을 파견하여 문정관이 배에 등선함으로써 한미간의 최초 접촉이 이루어졌다. 이후 1855년 강원도 앞바다에 미국 포경선 투 브라더스(Two Brothers)호가 표착해 왔고, 통천군수는 난파선원들을 구출하

1) 1823년 먼로선언

2) 김기정, 「미국의 동아시아 개입의 역사적 원형과 20세기 초 한미관계 연구」, 문학과 지성사, 2003. p.98~99.

였다. 조선정부는 이들 선원들을 청나라로 안전하게 보내주게 되는데, 이 미국 선원 4명은 최초로 한반도에 상륙하여 약 2개월간 체류했던 사람들이었다. 1866년 2월 미국은 상선 사불호(Surprise)를 파견하여 통상요구를 벌였으나 거절당했고,³⁾ 동년 6월 미국 상선 서프라이즈(Surprise)호가 서해안에 표류, 난파되었고 조선당국에 의해 구조되었다. 당시 서프라이즈호 선원 8명은 구조 후 청나라로 안전하게 송환되었다.⁴⁾

(2)제너럴 셔먼호 사건

1866년 8월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General Sherman)호가 통상교역을 위해 평양 대동강으로 항행해 들어오게 된다. 미국인 3명과 영국인 2명을 포함하여 총 24명의 선원이 승선해 있었다고 하며, 약간의 무장을 한 상태였다. 당시 조선의 관리들은 외국선박의 조선 내강 항행은 국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외국과의 통상 역시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며 선박의 대동강 소항을 만류했으나, 셔먼호의 주도자급이던 토마스 목사는 소항을 강행하였다. 그러나 조선당국은 이들에게 퇴거를 요구하면서도 선원들에게 식량과 땔감 등을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토마스 목사는 앞서 조선에서 일어났던 병인박해를 문제삼으며 장차 프랑스함대가 보복을 위해 내침할 것이라 위협하면서 통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자 이들은 난폭한 행동을 하게 되고 약탈을 일삼았으며, 중군 지위에 있던 조선의 관리를 피랍하는 등 난동을 피웠으며, 이 과정에서 사상자가 발생하게 된다. 결국 평양감사 박규수의 명령에 의해 셔먼호 선체는 소파되고 선원 전원이 사살되었다. 이 사건은 조선과 미국의 관계에 여러모로 중대한 전기를 마련한 사건이 되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정부는 1867년과 1868년에 두 차례에 걸쳐 진상조사 명목의 탐문항행을 단행하였고, 이후 미국은 대 조선 포함외교정책을 수립하여 조선을 강제적으로 개항하기 위해 1871년에 조선원정을 결행하게 되는데, 이 사건이 곧 신미양요이다.

(3)와추세트호와 세난도어호의 내항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발생한 이후 미국은 아시아함대 사령관인 벨 제독에게 탐문을 위한 조선으로의 함정 파견을 요구했고, 이에 벨 제독은 슈펠트에게 탐문항행의 임무를 부여한다. 슈펠트는 와추세트(Wachusett)호를 이끌고 1867년 1월 22일부터 2월 3일까지 황해도 등지를 항행하면서 탐사와 탐문을 시행하였다. 슈펠트는 앞서 있었던 미국 상선 서프라이즈호의 구제 사건을 제시하면서, 셔먼호가 왜 파괴되고 선원들이 학살되었는지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고 생존선원 여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서신을 조선정부 앞으로 보내게 된다. 슈펠트는 조선정부의 회답을 받지 못한 채 회항하게 되는데, 12일간 조선연안을 탐사항행하면서 조선개항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고 한다. 그는 “내가 처음으로 조선을 방문했을 때부터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나는 조선을 재방문하여 조선과 최초의 조약체결을 위해 교섭하기로 결심했다.” 라고 이야기

3) 「고종실록」 고종 2년 8월 17일.

4) 「일성록」 고종 3년 5월 17, 22일. ; E.M.Cable, “The United States-Korean Relations 1866~1871”.

했다고 전한다.⁵⁾

이후 미국은 세난도어(Shenandoah)호의 페비거 함장에게 제2차 셔먼호 탐문항행을 명했다. 이에 페비거는 1868년 4월 7일 이를 단행하는데, 페비거는 황해도 현지 주민과 접촉하면서 탐문한 결과, “셔먼호는 평양에서 분별없는 폭력을 자행했기 때문에 자초지화를 당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세난도어호는 탐문항행중에 조선포대로부터 포격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페비거는 조선 국왕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성조기를 게양한 함정에 대한 포격행위를 조선정부가 지지한다면 그건 분명 모욕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만약 귀국 정부가 명령한 처사가 아니라면 포격행위에 대한 사죄 또는 포격에 가담한 자를 처벌해주기 바란다.” 라며 세난도어호에 대한 포격행위를 규탄했다.⁶⁾

페비거는 만약 조선당국이 이에 대한 사죄와 기습포격에 관련된 조선 군인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미국 아시아함대의 보복원정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였다.

4.신미양요 시기

(1)신미양요의 발발

미국의 그란트 대통령은 셔먼호 탐문항행 결과 포함외교에 의한 조선원정 계획을 수용하고 1870년 4월 4일 조선원정을 단행한다고 선포하였다. 피쉬 국무장관은 청나라 주재 미국공사 로우에게 조선원정의 전권을 부여하면서 로저스 아시아함대 사령관에게 전 함대를 동원하여 조선원정에 나설 것을 명했다. 당시 미국의 조선원정의 일차적 목적은 셔먼호 사건에 대한 응징, 보복이었다. 셔먼호 사건에 대한 인명, 물질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조선당국과 조난선원 구출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조선원정의 궁극적 목적은 조선의 개항에 있었다. 로저스는 병력을 일본 나가사키에 집결한 후, 콜로라도호를 비롯한 군함 5척, 대포 85문, 총병력 1230명을 동원하여 1871년 5월 16일 조선원정을 단행한다.

(2)신미양요의 전개

5월16일 나가사키를 출항한 미국함대는 5월 31일 인천 앞바다의 작약도에 정박했다. 조선 대표가 콜로라도호를 방문하여 내항 목적 등을 문정했는데, 로저스는 “수도 한양을 방문하여 최고 당국자와 직접 교섭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한양으로 통하는 해상관문인 강화해협을 탐측할 것이니 조선군민은 이에 놀라지 말고 방해하지도 말 것을 일방적으로 통고했다.

6월 1일 미군 함정 두 척이 강화해협 탐측을 위해 진입했는데, 함대가 손돌목에 이르자 조선 포대가 포격을 가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를 “손돌목 포격사건”이라 한다. 이 사건은 신미양요 당시 벌어진 최초의 미국과 조선간의 교전이었다. 손돌목 포격사건 전까지는 평화적으로 교섭이 진행되었지만, 이후부터는 대화를 통한 교섭이 단절

5) “Corea’s Troubles,” The San Francisco Chronicle, October 30, 1887.

6) Febiger Letters, Febiger to The King of Korea, April 22, 1868.

되고, 양국은 백사장의 긴 장대 끝에 편지를 매달아 놓으면 상대국 대표가 이를 읽고 장대에서 답서를 전하는 이른 바 “장대교섭”으로 교신하게 된다. 미국은 장대서신을 통해 평화적으로 탐측활동을 벌이는 함정에 대한 기습포격은 성조기에 대한 모욕행위라고 비난하면서 10일 이내에 사죄와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강화도 상륙을 단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조선측은 미군함대가 조선의 허가없이 강화해협을 침입했으므로 이 행위는 영토침략이자 주권침해라며 사죄 및 보상을 거부하였다. 이후 6월 10일 미군은 초지진을 공격하여 점령했다. 그리고 6월11일에 덕진진을 점령하고, 광성보까지 점령하기에 이른다. 미군은 광성보를 함락한 뒤, 게양되어 있던 “수자기”를 내리고 성조기를 게양하며 전승을 자축했다. 6월 12일 오전, 로저스 제독은 “전승 축하훈령”을 발표하면서, 축하문에서 “본 사령관은 조선 강화도에서 벌인 최근의 작전에서 아시아함대 장병들이 발휘한 무공과 인내력에 대해 흡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장병에게 고지하게 되어 대단히 만족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바이다.” 라고 선언했다.⁷⁾

로저스는 주요 요새지를 미군이 함락하면 조선은 미군의 군사력에 굴복, 조선개항 교섭을 무난히 달성하리라고 전망했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로저스는 작약도 기지에서 조선의 협상 제의를 기대하면서 20 여일간 기다렸으나, 끝내 조선측의 반응이 없자 7월 3일 함대를 철수하게 된다. 로저스가 전승 축하 훈령을 발표하던 날, 조선정부는 미국의 침략행위를 규탄하면서 척화정책을 선언했다. 아울러 “서양 오랑캐들이 침범하니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라는 척화비를 전국 곳곳에 세워 쇄국양이정책을 선포하였다.

(3)신미양요에 대한 양국의 평가

1871년 미국이 단행한 조선원정은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성공하지 못한 원정이었다. 미국은 이를 통해 조선당국이 미국의 무력에 굴복하여 순순히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였다. 흥선대원군은 강화도가 미군에게 유린되고 다수의 희생이 있었음에도 쇄국양이정책을 더욱 강화하였다.

미국은 6월 1일 손돌목 포격사건에서 조선군이 기습포격을 가해 신미양요가 발발했다고 주장하며, 전쟁의 책임을 조선측에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로저스 제독은 조선원정을 통해 “극동에서의 미국의 위신을 선양했다. 우리는 조선에서 만족할 만한 응징을 했다.” 라고 주장하면서 비록 조선의 개항이라는 목표는 이루지 못했지만, 한반도 그리고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국가적 위신을 높였다고 평가하고 있다.⁸⁾

한편, 조선측이 미국의 압도적 전승으로 끝났음에도 이를 단순히 양요로 취급하는 이유는 조선정부가 패전을 인정하지 않았고 미군함대가 철수한 것을 그들의 패퇴로 보기 때문이다. 조선은 앞서 1866년에 있었던 병인양요와 더불어 1871년 신미양요에서 서양 오랑캐를 물리친 것에 대해 자부심과 자신감을 내비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

7) The New York Times, August 22, 1871.

8) Annual Report, p.13 ; “The Korean Expedition of 1871”, p.203

다. 신미양요 이후 전국에 척화비를 건립하고 쇄국양이정책을 강화해 나간데에는 이러한 이유가 기인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5.조미 수호통상조약 체결

(1)신미양요 이후 조선의 정치적 변화

조선에서는 1873년 고종이 친정을 시작하면서 이전까지 실세였던 흥선대원군은 실각했다. 이는 조선의 대외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흥선대원군 시기까지 강력하게 추진되던 쇄국양이정책도 서서히 그 기반이 흔들리게 되는데, 개항과 통상교역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1876년 일본이 운요호 사건을 일으키면서 조선은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체결하고 문호를 개방하게 된다. 이후 조선은 일본에 수신사, 조사시찰단, 그리고 청나라에 영선사 등을 파견하면서 개화와 외국과의 교류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변화를 겪게 되었다.

(2)1871~1882 미국의 대 조선 정책

미국은 신미양요 이후 조선의 정치적 정세변화를 관망하면서 교섭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1874년 3월 윌리엄즈 주청 미국공사는 “대원군 정부가 퇴진한 후, 신정부는 외국인과 기독교에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라고 국무부에 보고했다. 또한, 1878년 4월 사전트 상원의원은 조선개항 결의안을 제안했는데, 조선개항의 필요성을 5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경제적 이유로 미국의 대아시아무역 팽창주의 정책을 구현하려면 무엇보다도 조선개항이 실현되어야 한다. 한반도에까지 통상무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미국의 판매시장을 확보함으로써, 조선인을 상품고객으로 만든다는 것이고, 둘째, 러시아가 한반도를 점령하면 일본에게 항구적 위협이 된다. 따라서 일본의 강대화를 돕고 미국의 영향력을 증대함으로써, 러시아의 남진정책을 저지할 수 있다. 셋째, 셔먼호 사건과 같은 비극을 방지하려면 조선과 조난선원 구출 및 보호를 위한 협정 체결이 필요하다, 넷째, 채광권이 확보된다. 다섯째, 문화적 이상주의의 구현인데, 입약이 실현되면 미국의 유위한 청년들이 한반도로 진출하여 한국의 개화를 도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⁹⁾

미국정부는 이같은 조선개항정책을 수립하고 이전에 셔먼호 사건 탐문항행차 조선을 방문한 적이 있고 조선에 대한 개항을 여러 차례 주장한 바 있는 슈펠트 제독에게 대한(對韓) 입약교섭의 전권을 부여했다. 슈펠트는 1880년 4월 타이콘데로가(Ticonderoga)호를 타고 일본에 와서 일본이 강화도조약을 통해 조선을 개항했으므로 일본의 중재를 통해 조선개항교섭을 시도했다. 그 결과 슈펠트는 일본 외무관료의 소개장을 받고 1880년 5월 4일 부산을 방문했다. 그러나 동래부사는 1871년에 있었던 미국의 강화도 침략을 규탄하며 슈펠트를 만나지 않았다.

일본의 중재에 의한 입약교섭이 실효를 얻지 못하자, 미국은 조선에 대한 정책을

9) 김원모, 「개화기 한미 교섭관계사」,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3. p. 86~87.

전면 재검토하게 되는데, 미국은 아시아의 정치외교 질서의 밑바탕에는 조공관계가 깊이 작용한다고 판단하여 조선과 전통적 조공관계를 맺고 있는 청나라를 통한 교섭을 구상하게 된다. 청의 중재와 알선을 통한 조선개항을 시도하려는 목표 아래 슈펠트는 텐진에서 이홍장을 만나 조선개항 문제를 협의했다. 여기서 두 사람의 의견차가 있었는데, 이홍장은 소위 “속방론”을 주장하며 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조선개항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슈펠트는 “조선독립론”을 주장하며 조선을 하나의 독립개체로 내세우고자 했다. 이후 조선과 미국간의 수호통상조약에서 미국의 입장이 반영되어 조약이 맺어지게 된다.

(3)조미수호통상조약의 체결

조선과 미국간의 공식적인 외교 관계는 1882년 5월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고 다음해 양국의 비준을 거치면서 비로소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1905년 11월 을사보호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일본에게 박탈되어 주한 미국공사관이 철수되는 시점까지 약 23년간 지속된다.

1882년 5월 22일 제물포에서 조인된 조미수호통상조약으로 인해 조선은 기존의 쇄국정책에서 탈피하여 구미 열강 국가와도 외교 관계를 맺게 되었다. 당시 미국과 체결한 이 조약은 조선이 서양 국가와 맺은 최초의 조약이었다는 의의를 갖는다. 이후 조선은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과 차례로 조약을 맺으며 근대 시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서게 되었다.

(4)조약체결이 갖는 의미

조선과 미국간의 조약체결이 갖는 역사적 의미에는,

첫째, 조선은 기존의 쇄국양이정책을 지양하고 개화개방정책을 채택하여 세계만방에 문호를 개방했다는 점인데, 이로써 조선은 구미 선진문물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둘째, 조선은 미국과 수교함으로써 청의 종주권에서 탈피하여 자주독립국가로서의 위상을 어느 정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청은 속방론에 입각하여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조약문에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다.” 라는 문구를 넣고자 했으나, 미국은 이를 거부했고, 조선이 독립국임을 명확히 하였다.

셋째, 미국은 조선을 주권국가로 인정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이 당시 국제사회에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계의 일원으로 인정하였다는 것이고, 사실상 조선을 국제법상 국가로 처음 인정한 나라가 미국이었다고 보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5)거중조정

조미수호통상조약 제1조에는 이른 바 “거중조정” 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합중국 대통령과 조선 국왕, 각기 국민과 신민간에는 영원히 화평우호가 존속할 것이다. 만약 제3국이 체약국에 대해 불공경모(不公輕侮)하는 일이 있게 되면 일차 조지(照知)를 거친 뒤에 거중조정(good offices)을 함으로써 원만한 협약을 이룩하고 그 우의를 표시한다.

이 문구의 삽입은 그 해석과 적용의 범위에 있어 조선과 미국의 온도차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당시 조선은 약소국의 입장에서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침략위협에 직면하고 있었기에, 이 거중조정에 의해 미국이 조선의 보호를 위해 책무를 다해 줄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 향후 조선이 서구 어느 나라보다도 미국에게 가장 유리한 이권을 부여한 것도 장차 조선이 열강의 침략을 받아서 국가존립이 위태로울 경우 미국의 개입과 거중조정에 의해 구제받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후일 스펜서 미주리 출신 상원의원은 “동 조약은 조선인에게 정의와 우의관계 유지를 위해 굳은 신념을 주었다. 그러므로 조선인들은 이 신념을 관철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조선인들은 영원히 동 조약문을 달리 변경시키지 않을 것이며 이 조약은 그들에게는 유일한 기대와 희망이 되고 있다.” 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반면 미국은 조선의 구원요구를 외면하면서 조약 의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조선의 정치문제에 불개입함으로써, 거중조정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지는 않았다고 평가된다. 물론 미국이 거중조정에 입각하여 행동한 예도 없지는 않다. 가령, 조약 체결에서부터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였으며, 서울주재 미국공사와 선교사들이 했던 조선 정부를 위한 중재역할이 그 예라 하겠다. 실(Sill) 공사의 청일 양군 철수 노력, 1893년 시카고 만국박람회에 조선 참가를 주선했던 일 등 조선정부를 위해 거중조정을 행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슈펠트 제독에 의한 조약 체결당시의 조선 독립을 승인한 것 외에는 미국정부가 공식적 거중조정 행사를 성실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영국이 거문도를 점거했을 당시 조선의 거중조정 호소에 불응하였고,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될 때에도 조선정부는 미국에게 거중조정을 근거로 도움을 요청하지만 미국은 이를 외면했다. 또한, 미국은 청일전쟁을 전후한 시기부터 조선에 대한 거중조정 책임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조선 문제에 불개입하는 정책을 보인다. 청일전쟁이 발발한 이후부터 1905년 주한 미국공사관이 철수할 때까지 미국이 조선의 거중조정 호소에 응하여 성실하게 임한 사례는 거의 없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조선의 거중조정 요구를 거부하고 대조선 불개입 정책을 편 것이었을까?

첫째, 미국은 거중조정을 행사하려면 당사국(피해국)과 가해국 양측이 모두 납득하는 범위내에서 행사가 가능함으로 어느 일방만을 위해 개입할 수는 없다는 논리를 펴는데, 이는 당시 일본과 밀착하는 움직임을 보이던 미국의 대외정책과 관련이 있다.

둘째로는, 청일전쟁 이후 미국은 조선을 독립이 어려운 국가로 여기고 설령 거중조정을 행사하더라도 조선을 구제할 수 없다고 여겼다.

그리고 셋째로는, 1898년 미서전쟁의 결과 필리핀을 획득하게 된 미국은 이를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친일정책을 펴게 되고, 그 대가로 조선을 일본의 세력권하에 맡기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필리핀의 안보를

보장받기 위해 조선의 거중조정 요구를 거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만주 지역으로 세력을 넓혀 오던 러시아를 저지하기 위해 미국은 일본을 필요로 하였고, 이에 친일외교를 전개하고 조선을 외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6. 수교 이후 양국의 외교 관계

(1)주한 미국공사의 파견

미국 의회는 1883년 1월 9일 조약을 비준하고, 아더(Chester A. Arthur) 대통령은 2월 13일 이를 최종 비준한 후 3월 9일 푸트를 주한 미국특명전권공사에 임명했다. 미국정부가 주한 미국공사의 지위를 주청공사, 그리고 주일공사의 지위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특명전권공사로 격상한 것은 미국의 조선 독립정책의 일환으로 취한 조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영국은 조선과 수교 후 총영사를 파견하여 주청 영국공사의 지휘를 받도록 했고, 독일은 외교관 중 가장 낮은 영사를 조선에 주재시킨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조약 제2조에 “본 조약을 입약하고 통상화호한 뒤에 양 체약국은 각각 외교대표를 상대국 수도에 주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외교관 교환 원칙에 따라 1883년 5월 19일 초대 주한 미국공사 푸트는 서울에 부임하여 조미간 비준문서를 교환하게 된다. 푸트는 비준문서 교환 후 주한 미국공사관을 정동에 개설하였다.

조선 역시 미국에 조선전권공사를 파견해야 했으나,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상주공사관을 개설하지 못했다. 이에 푸트는 상주하는 공사를 보내는 대안으로 견미사절단 파견을 제의했는데, 조선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7월 9일 조선보빙사를 워싱턴으로 파견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2)조선보빙사의 파견

1)파견과정

1883년 7월 16일 조선정부는 견미사절인 조선보빙사를 임명했다. 전권대신 민영익과 홍영식을 비롯하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들 일행은 일본을 거쳐 긴 여정 끝에 9월 13일 워싱턴에 도착한다. 조선보빙사 일행은 아더 대통령을 만나 국서제정식을 거행하였고, 이후 일행은 미국 동부의 산업도시와 박람회, 농장, 공장 등을 시찰하고 미국 정부의 각 부처도 순방하였다.

2)조선정부가 보빙사를 파견한 목적

첫째는, 조선은 보빙사의 미국 파견으로 미국으로부터 공인받은 자주독립국이라는 사실을 국제적으로 선양할 수 있는 호기를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였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미국인 고문관, 교사, 군사교관 등을 초빙하여 개화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으려 하였다.

(3)주미 전권공사 임명과 상주공사관 개설

1882년 조약체결 이후 푸트 공사가 조선에 오고, 조선은 이에 대한 답례로 보빙사를 파견했으나, 1883년 초대 주한 미국공사 푸트가 부임한 이래 1887년까지 주한 미국공사가 5명이나 교체되는 동안 조선은 미국에 상주공사관을 개설하지 못했다. 상주공사관 개설이 늦어진 데는 1882년 임오군란 이후 청의 내정간섭이 강화된 것이 한 원인이기도 하였다. 1887년 7월 조선정부는 박정양을 주미 특명전권공사에 임명하고 파견하기에 이른다. 박정양을 전권공사에 임명하자 청은 종주권을 주장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지만, 1888년 1월 박정양은 워싱턴에 부임하였고, 상주공사관을 개설하였다.

(4)1880년대 중반 미국의 소극정책

미국은 통상무역을 목적으로 조선의 개항을 이뤄냈지만, 1880년대 중반부터 한반도에 대해 점차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결국 소극정책(Inactive policy)으로 나아가기에 이른다. 미국정부는 조미조약이 비준된 후 푸트를 초대 주한 특명전권공사로 임명했으나, 1년만에 미국공사의 지위를 변리공사 겸 총영사로 격하한다.

미국이 이와 같이 무관심 소극정책으로 전환하게 된 요인은 청이나 일본에 비해 조선의 경제적 가치가 기대에 못 미친다고 판단한 데 기인한다. 미국은 조선에 공사관을 개설하고 외교업무를 개시하면서 조선과의 관계가 “빈약한 의존관계”라고 판단하게 된다.

(5)1890년대 미국의 정책과 조미관계

1)시대적 배경

1890년대에 들어오면서 미국의 대 조선 정책은 변화를 보이게 된다. 1890년대는 동북아시아의 국제질서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있던 시기이다. 1894년 청일전쟁의 결과 일본이 청에 승리를 거둔 것은 기존의 중국 중심 국제질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일이자 동북아의 패권이 청에서 일본으로 넘어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청일전쟁의 승리로 일본은 랴오둥반도를 차지하지만, 삼국간섭에 의하여 청에 반환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러시아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게 되고, 만주와 한반도를 세력권에 두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 시기 조선은 일본을 견제할 목적으로 러시아와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일본과 러시아의 대립이 점차 고조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정세 변화속에서 미국은 러시아를 견제하고 동아시아에서의 자신들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점차 일본을 필요로 하게 된다.

2)청일전쟁 직후(1894~1896) 미국의 불개입정책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의 갑오개혁에 관여하며 김홍집 내각을 발족시키며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해 나간다. 침략위협에 직면한 조선은 미국에 도움을 호소하지만, 미국은 친일정책으로의 전환을 이룬 터라 조선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았

다. 미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조선문제에 절대 불관여를 선언했지만, 알렌 공사대리는 조선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 일본의 을미사변을 규탄하고 반일친러정책을 바탕으로 대일 강경외교를 강행하기도 하였다. 1885년 알렌은 본국정부로부터 조선 내정에 “절대 불관여”라는 국무부 “외교훈령64호”를 받게 된다.

3)아관파천 이후(1896~1898) 미국의 대일 협조정책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일본이 랴오둥반도를 차지했을 때 러시아는 독일, 프랑스와 함께 일본에 압력을 넣어 일본으로 하여금 랴오둥반도를 중국에 반환케 하였다. 이후 조선에서 아관파천이 일어나고, 러시아는 니콜라이 황제 대관식에 참석한 청의 이홍장과 1896년 5월 청러밀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는 러시아의 극동 아시아에로의 팽창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러시아는 동청철도부설밀약을 체결하여 한반도에로의 남진정책을 구현하고 한반도에서 일본 세력을 밀어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된다. 러시아는 아관파천을 계기로 조선에 친러정부를 수립하고자 하였고, 러시아 외상 로바노프는 황제 대관식에 참석했던 특명전권공사 민영익과 한러 비밀협정을 체결했다(1896.7).

이후에도 러시아는 군사교관의 파견, 스페이에르 주한 러시아공사는 조선 친러정부와 교섭하여 압록강과 두만강, 울릉도의 삼림 벌채권을 획득하고, 한국의 재정권 장악을 위해 한러은행을 개설, 절영도 조차 요구 등 조선의 정치, 군사, 재정, 상업 등 여러 분야에서 전반적인 우월권의 확보를 기도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이와 같은 러시아의 적극적인 한반도 진출은 일본에게는 중대한 도전이었다. 이에 미국정부는 러시아의 남진정책을 견제하고자, 친일 동정적 태도를 취하면서 주한 미국공사로 임명된 알렌에게 친일반러정책을 추진하도록 종용하기도 했다. 미국은 당시 독립협회를 조직하여 러시아로부터의 자주권 회복을 주장하던 서재필을 적극 지원하고, 러시아의 부산 절영도 저탄소 설치안을 반대했으며, 러시아의 조선 군사지배권 장악 기도를 봉쇄, 일본을 위하여 철도부설권을 획득하는데 일조하는 등 조선에서 일본이 러시아를 밀어내고 우위를 확보하는데 조력을 주는 정책을 펴게 된다. 결국 미국은 미일 협조체제로 러시아세력을 한반도로부터 추방하는데 성공한다. 1898년 3월 12일 러시아는 조선주재 군사교관 및 재정고문을 철수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일본은 러시아와 니시-로젠 협정을 맺어 러시아세력이 한반도에서 후퇴하게끔 하였다.

(6)20세기 초(1900~1905)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과 한미관계

1)미국의 친일반러정책

러시아세력의 후퇴로 친러내각이 붕괴되고 이어 친일내각이 성립됨에 따라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이 강화되었다. 한편 미국은 1898년 미서전쟁 결과 필리핀을 획득함으로써 필리핀의 안보와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이권수호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미국은 러시아의 남진으로 인한 미국의 이권 위협, 일본의 필리핀 진출 가능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일본의 한반도 지배에 협조하는 정책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일본의 한반도 침략이 노골화되자 불안을 느낀 고종은 알렌 공사를 통하여 조선의 영토보전을 보장하는 협정을 열강으로부터 확보하는데 미

국이 출선해 줄 것을 간청했다. 이에 알렌은 매킨리 대통령과 헤이 국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영토 보전문제를 언급했으나, 냉담한 반응을 받았다. 또한, 주일 한국공사는 주일 미국공사에게 미국이 모든 열강과 협조해서 스위스와 같은 조선의 독립과 중립을 국제적으로 보장하는 협정체결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으나 완곡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한다. 헤이 국무장관도 이에 동의함으로써 미국은 한국문제에 소극적이고 무관심한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었다.¹⁰⁾

20세기 들어 러시아의 한반도 진출기도가 다시금 활발해졌다. 러시아는 마산포 해군기지를 확보하고 조선정부와 “마산포 지소조차에 관한 한러조약”을 1900년 4월 20일 체결했다. 그리고 러시아는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 삼림 벌채권을 20년간 연장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1901년 4월 11일 조선정부와 체결하였다. 또한 러시아는 경의철도 부설권을 요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러시아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준공하는 등 만주와 한반도로의 진출을 적극 시도하게 되는데, 이는 일본에게 안보위협이었으며 장차 러일전쟁의 발발요인이 된다. 러일간의 치열한 쟁파전으로 한반도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에 알렌은 현지공사로서 조선 구제운동을 결심하고 본국에 건의했지만, 당시 미국의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 대통령은 철저히 친일반러정책을 고수하였다.

루스벨트의 한반도 정책의 기초를 언급하면, 일본은 미국을 대신하여 러시아의 남침을 막아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을 후원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미국은 러일 두 나라가 한반도의 경제적 이권 쟁탈전을 벌이는 와중에 한반도의 경제적 가치보다 전략적 가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경제적 이권을 포기하더라도 일본이 러시아의 남진을 저지해준다면 한반도의 운명을 일본에 위탁하겠다는 전략적 고려를 중시하고 있었다. 1900년 루스벨트는 주미 독일대사 스텐버그에게 “일본이 조선을 점유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유는 일본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것에서도 당시 미국정부가 취하고 있던 한반도 정책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이후 루스벨트는 조미조약 제1조의 거중조정 공약을 파기하면서 한반도를 포기하는 정책으로 나아가게 된다.

2)러일전쟁과 미국의 한반도 포기정책

1902년 영일동맹이 체결되자 러시아는 일본에게 만주, 한반도 문제를 놓고 협상을 제의하였다. 일본은 만주에서의 러시아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대신 러시아는 한반도에서의 일본의 정치, 산업, 상업상의 특수이권을 인정하는 안을 러시아에 제안했지만, 러시아는 북위 39도 이북에 중립지대 설립안을 일본에 제시했다. 그러나 일본은 한반도 분할을 완강히 거부했고, 만주에서도 동일한 중립지대 설립을 요구했으나 러시아는 한반도에만 중립지대를 국한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협상은 결렬되고 말았다.

결국 일본은 1904년 2월 6일 러시아와 국교를 단절하고 2월 10일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러일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다. 일본은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외교적, 물질적 지원을 얻고 있었다. 영일동맹 체결로 영국의 전폭적 지지를 확보했고, 미국과는 루스벨트

10) United States Policy Regarding Korea, pp.18~19.

로부터 외교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다. 전쟁 발발 후 루스벨트는 “만약 프랑스나 독일이 삼국간섭의 예처럼 일본에 대항한다면 본인은 일본편을 들어 일본을 도와줄 것이다.”라며 일본지원을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과 영국은 전쟁비용까지도 일본에 지원하기도 하였는데, 이같은 미국과 영국의 지원은 일본이 승리하는데 큰 요인이 되었다. 미국의 루스벨트는 일본을 지원하면서 한반도에 대해서는 포기정책(Policy of giving up on Korea)을 펴 나갔다. 루스벨트는 부통령 시절이던 1900년에도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한국민은 자치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본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미국은 한국을 위해 어떤 책임을 저서도 안 되며, 만약 일본이 한국을 인수하여 효과적으로 지배통치, 한국이 결코 할 수 없는 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이상 바람직한 일은 없을 것이다.

알렌은 미국이 조선을 개항하였고, 구미열강 가운데 최초로 조약을 체결했으며, 거중조정 공약을 조약문에 약속하였으므로 한반도를 일본에 맡길 이유가 없다며 발문했으나 이에 루스벨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일본의 비위를 거슬러 가면서까지 한국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 한국인이 자신과의 이해관계가 없는 제3국이 한국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해 주리라고 기대한다면 이는 망상이다.

루스벨트는 1905년 1월 헤이 국무장관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 문제에 관여할 수 없다.”라며 한반도 포기를 공식 선언했고, 주미 독일대사 마이어에게 “한국은 독립할 능력이 전혀 없으므로 일본은 한국에 보호국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일본이 한반도를 점유해야 한다는 미국정부의 공식견해를 케넌을 통하여 일본가쓰라 수상에게 전달했다. 일본의 고무라(小村壽太郎) 외상은 러일전쟁의 전황이 유리하게 전개되자 한반도 포기정책을 고수하는 루스벨트에게 강화회담 중재를 제의했고, 미국은 이를 수락했다. 강화회담 중재 수락 후 미국은 필리핀 안보확보를 위해 육군장관 태프트를 일본에 파견하여 1905년 7월 27일 소위 “가쓰라-태프트 비밀협정”을 체결한다. 이 협정을 통해 일본은 필리핀 불침을 약속하고,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일본의 자유행동권(free hand)을 인정했다. 이어 일본은 1905년 8월 12일 제2차 영일동맹에서 영국으로부터 한반도 지배를 인정받는다.

한편 고종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공사관을 통해 거중조정을 호소하였고, 1905년 7월 포츠머스 강화회담 개최를 앞두고 밀사를 미국공사에게 파견하여 러일강화회담에 한국대표를 파견하도록 주선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실효를 보지 못했다.

조선정부는 1904년 8월부터 1905년 12월까지 미국에게 무려 여섯 차례에 걸쳐 구제 요청을 하였다. 그 구제호소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1)고종의 밀지와 구제호소 편지를 니담을 통하여 미 국무부에 전달(1904. 9. 30)
- (2)고종, 모건 공사를 통해 구제 호소(1905. 7)

- (3)독립청원서를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전달(1905. 7. 12)
- (4)내한한 엘리스양에게 구제 호소(1905. 9. 20)
- (5)고종, 험버트를 밀사로 파견, 미국의 거중조정역할 호소(1905.10)
- (6)주불 한국공사의 한국 구제 호소(1905. 12. 7.)

미국의 포기정책과 러일전쟁에서의 승리를 바탕으로 일본은 한반도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한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3)을사조약의 체결과 미국과의 국교단절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905년 11월 17일 을사조약을 강압적으로 체결함으로써 대한제국의 외교권은 상실되었다. 고종은 험버트에게 구제호소를 담은 밀지를 전하면서 미국정부에 마지막 구원의 임무를 요청했다. 고종은 밀서에서 “국가 존망의 위기를 당하고 있는 한국을 구원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해주기를 간절히 갈망한다.”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루스벨트는 험버트는 신임장이 없는 개인 밀사일 뿐이라는 이유로 험버트를 만나주지도 않았고 고종의 구원 호소도 묵살했다. 또한 주불 한국공사가 미 국무부를 방문하여 루트 장관에게 고종의 “을사조약 무효선언 전문”을 전하면서 거중조정을 호소했지만, 루트는 한국은 이미 외교권이 없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했다.

루트 국무장관은 을사조약 체결사실을 주미 일본공사로부터 정식 통고받고 1905년 11월 24일 서울주재 미국공사관에 철수 명령을 내렸다. 구미 열강 국가 중 가장 먼저 조약을 체결했던 미국은 제일 먼저 공사관 철수를 단행하고 대한제국과 국교를 단절했다. 1882년 수교 이래 23년간 유지되던 두 나라간 국교관계는 공사관 철수로 단절된다.

당시 미국이 선택한 정책은 한국의 독립에 있지 않았다. 루스벨트가 한국 포기정책을 채택한 이유를 분석해 보면, 첫째는 한일외정서, 한일협약 체결로 사실상 통치권이 일본에 이양되었기 때문에 미국은 거중조정 이행 명분으로 한국 문제에 개입하기가 어려웠을 수 있다. 둘째로는 미국은 러시아의 남진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일본을 선택했고 일본이 그 역할을 해 주는 대가로 일본의 한국지배를 묵인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민은 자치능력이 없는 민족이라 독립 불가능하고 따라서 일본이 아니라도 러시아의 지배하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본 루스벨트의 인식 때문이다. 루스벨트는 러시아 혹은 일본의 조선지배 태일의 문제에서 일본을 선택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조약상의 거중조정 조항에 대해서도 조선과 미국은 너무도 상반된 견해를 보인다. 미국은 그 의미를 국소화하며 미국에게 특별한 책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단지 외교적 지지를 표명한 것일 뿐 한국의 주권과 독립을 물리적으로 보호해준다는 공약은 아니라는 해석을 하였다. 반면 한국측 시각은 확대화 해석의 입장에서 한국이 침략위협을 받을 위기국면에 직면할 경우 언제든지 미국은 한국에 개입하여 영토보전과 독립을 위해 역할을 해 줄 것이라 기대하였다. 그러므로 고종을 비롯한 지도부는 거듭 미국에게 거중조정을 호소하였던 것이다.

Ⅲ, 결 론

19세기부터 20세기 초 국권피탈이 있기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해 나갔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외교관계가 없이 서로 잘 알지 못하던 시기 양국의 접촉에서부터 제너럴 셔먼호 사건과 이로 인해 야기된 신미양요, 그리고 이후 조미수호통상조약을 통해 국교가 수립되고 을사조약 체결 이후 국교가 단절되기 까지 두 나라간의 관계와 그 기간동안 미국이 한국에 대해 취했던 정책을 살펴 보았다. 초기 한미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한미관계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알고 당시 두 나라간 이해관계는 어떠했는지,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과오 등을 알아보는 것은, 오늘날의 한미관계를 이해하고 국익에 유익한 방향으로의 모색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당시의 한국 상황과 지금의 한국 상황은 다르다. 한국과 미국간에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인식에도 차이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격동하던 근대화의 시기에, 두 나라간 외교관계가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우리의 역사를 이해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증대와 외교의 방향에 대해 모색할 수 있다면 그 의미가 깊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IV. 참 고 문 헌

김원모, 「개화기 한미 교섭관계사」,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3.

김명호, 「초기 한미관계의 재조명」, 역사비평사, 2005.

이민식, 「근대 한미관계사」, 백산자료원, 2001.

김기정, 「미국의 동아시아 개입의 역사적 원형과 20세기 초 한미관계 연구」, 문학과 지성사, 2003.

김원모, 「한미 외교관계 100년사」, 철학과 현실사, 2002.

변태섭, 「한국사통론」, 삼영사, 1993.

강화 산성에 관한 고찰 -역사적 의미와 군사적 요충지로서 기능을 중심으로-

이민윤 (역사교육과 2학년)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강화 산성의 역사적 의의
 - 1) 시기별로 보는 강화 산성의 축조 배경.
 - 2) 역사적 의의에 관한 고찰.
2.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강화산성

III. 결 론

1. 강화 산성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와 역할이란.

I. 서론

강화도라는 지역은 고려 시대에 들어서 개경 주변에 주나라 대에 봉건제의 왕기에서 비롯하고, 이를 당이 체계화한 ‘경기(京畿) 제1’¹⁾가 시행되며 주목을 받다가, 강화 천도 이후에는 고려의 실질적인 군사적 요충지 및 경제의 중심지로 활용되었다. 중심에는 강화산성이 있는데, 이는 1232년 무신정권의 집권자 최우가 수도를 개경에서 강화도를 옮기며 내성을 쌓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중성을 쌓았으며, 이듬해 염하강을 따라 외성을 쌓으며 내성, 중성, 외성 형태로 이루어졌었다. 처음에는 몽골을 견제하기 위하여 강화 산성을 축조하였으나 1259년 몽골과의 강화로 모두 철거했다.²⁾ 이후 조선 초에 남아있던 내성을 축소하여 다시금 흙으로 벽을 쌓았으나 병자호란으로 인하여 파괴되었고, 이를 숙종이 고려 당시 내성의 규모로 크게 고쳐 쌓았으니, 이것이 현존하는 사적 132호 강화 산성이다. 둘로 쌓았고 낮게 쌓은 여장도 있었지만 전부 파괴되었다.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된 계기는 오늘날 강화 산성, 나아가 강화도라는 지역 자체를 아무도 역사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지 않는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역사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산성이 축조된 강화도라는 지역 자체는 고려 시대를 이해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 개경을 대체한 도읍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경의 현 위치인 개성에 대하여 출입 및 연구가 어렵기 때문에, 강화는 고려의 도성이나 수도의 모습을 이해함에 있어 중요하다. 강화 산성의 연구 방향은 역사가 아닌 관광지 개발에 초점을 두므로써, 해당 장소와 관련된 논문은 대부분 관광 개발과 복원 방향을 제시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강화 산성은 몽골의 침입과 병자호란,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일본의 침입과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는 등 한국사에서 중요한 사건을 여러 번 겪었던 산성이지만 이에 반해 진행된 연구가 적고, 별도의 홈페이지도 운영하지 않아 정보를 얻기 힘들다. 장소가 지닌 역사적 의미에 비해 사람들의 인식은 그저 등산로, 관광지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논자는 역사를 전공하기에 강화 산성을 관광적, 상업적 측면이 아니라, 한국사에서 어떠한 위치를 지니고 있고, 역사적 의미로는 무엇이 있을지 정립해 보고자 한다. 사료에는 어떻게 언급되어 있고, 당대인들의 인식은 어떠한지, 나아가 다른 성벽, 산성과 비교했을 때 건축적 특징, 그리고 고려 당시에 지어진 성벽과 조선시대에 복원됐을 때의 차이점을 짚어보겠다. 또한, 이 소논문을 통해 강화 산성을 역사적인 측면에서 연구하여 강화 산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소망한다.

1) 경기제는 왕도와 왕실을 보위하기 위해 설치된 왕도의 외곽지역을 뜻한다.

2) 『高麗史』권56, 지 10, 지리 1, 양광도 강화.

II. 본론

1. 강화 산성의 역사적 의의

1) 시기별로 보는 강화 산성의 축조 배경.

우선, 당시 고려가 왜 강화도로 천도했는가를 살펴보자, 대부분에 자료는 강성했던 몽골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천도를 단행했다고 명시했지만, 실제 사료는 이렇다.

“최우가 재추(宰樞)들을 자신의 집으로 모아 놓고 천도할 일을 의논하였다. 당시 국가가 태평한지 이미 오래되어 수도의 호수(戶數)가 10만에 이르고, 단청한 좋은 집들이 즐비하였으며, 사람들도 자신의 거처를 편안하게 여겨 천도를 곤란하게 생각하였으나, 최우를 두려워하여 감히 말을 하는 자가 없었다.”

-『고려사절요』 권16, 고종안효대왕 3 임진 19년 6월-

당시 개경은 태평했고, 호수가 10만에 이르며 변화했다고 명시돼 있지만, 당시 무신 집권기의 실권자인 최우를 두려워하여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문신을 역임하던 유승단, 야별초지유 김세충이 강화 천도를 반대하였다. 유승단은 강화 천도 반대론을 주장하며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당연하고, 예로써 그들을 섬겨야 한다고 말했고, 김세충은 개경을 버리고 마땅히 갈 곳이 없다며 반발하였으나 유승단의 의견은 묵살하고, 어사대부 대집성, 응양군 상호군 김현보와 합세하여 김세충을 끌어내 처형하였다. 당시 국왕인 고종도 강화 천도를 망설였으나 최우가 녹봉을 실어 나르는 수레 100여 량을 빼앗아 집안의 재물을 강화도로 옮겼고, 시일을 정하여 개경에 있던 백성들을 강제로 출발케 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백성은 군법에 따라 처벌되었다. 이 과정에서 장맛비가 내리며 진흙이 발목까지 빠져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일부는 목숨을 잃기도 했다.³⁾ 최우는 어째서 유승단, 김세충이 반대하고, 왕이 망설인 강화 천도를 단행하였는가? 이유는 다음과 같다. 몽골 사신인 저고여의 피살 사건을 구실로 일어난 몽골의 1차 침입에서 고려 조정의 무능, 즉 무신들의 무능으로 개경을 지나 충주까지 몽골군이 진입하였다. 또한 전반적으로 무신에 대한 반감이 심해지며 저항하는 분위기였다. 최우로서는 강화도로 천도하는 것이 본인에겐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강경하면서도 급진적으로 실행한 것이다. 간혹 패배 이후 몽골과 맺은 강화(講和)에서 국왕의 친조⁴⁾를 요구하여 최우가 본인의 권력 유지를 위해 천도를 결심하였다고 보는 주장이 있으나, 몽골은 처음 협상에는 물자 1만 필과 대·소마 1만 필, 왕족과 귀족의 동남·동녀 각 1천 명을 요구하는 등 국왕의 친조나 다루가치 등을 요구하지 않았다.⁵⁾ 협상이 진행되며 물자나 인질에 관한 요구가 늘어나

3) 『고려사절요』권16, 고종안효대왕 3 임진 19년 6월

4) 親朝. 임금의 몸소 나라를 다스림.

5) 이익주. (2018). 고려-몽골 전쟁 초기(1231~1232)의 강화 협상 연구. 한국사연구.(180), 19p.

자, 최우는 협상을 거부하고 이미 강화도로 천도한 상태였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은 시기상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후 최우는 강화도에 차례대로 내성, 중성, 외성을 흙으로 쌓았으니, 이것이 강화 산성이다. 그러나 내성을 중심으로 축조된 강화 산성은 고려 시대에는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축조 이후 최우가 팔관회 등의 국가 행사를 이유로 사치와 향락에만 집중하였고, 점차 방탕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몽골의 3차 침입을 막아내지 못하였고, 패전 이후 몽골의 요청으로 수도를 다시 개경으로 옮긴 뒤 세 성을 모두 철거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에는 어째서 철거했던 강화 산성을 축소하면서까지 다시 지으려 했을까?

"강화(江華)·교동(喬桐)은 나라의 문호(門戶)가 되므로, 해구(海寇)가 기전(畿甸)을 엿보면 반드시 이곳을 경유합니다. 그러므로 전함(戰艦)을 머물러 두어서 불의의 변을 방지하는 것은 진실로 적절한 대책입니다. 그러나 풍해도(豐海道)·충청도의 연해 지방에 왜적이 불의에 나와서 갑자기 입침(入侵)하면, 즉시 배가 나가서 뒤쫓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본래 군사의 양식이 없어서 반드시 군인들로 하여금 아주(牙州)·연안(延安)·수원(水原)·광주(廣州)에서 급료(給料)를 받게 합니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1월 29일 임신 1번째 기사-

태종실록에서 강화도를 나라의 문호라 인식하고, 해구가 반드시 이곳을 경유하기에 전함을 대기시켜 방비하여야 하지만 식량과 물자가 없어 기회를 잃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강화도를 군자전에 붙이고 산성에 세입을 저장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후 세종 대에 이르러 두 차례의 논의 끝에 축조를 시작한다. 사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화성(江華城)의 기지를 이미 배지평(背只平)으로 심의 택정하였사온데, 그 주위가 무릇 3천 척입니다. 청하읍건대, 본주의 연호군(烟戶軍) 및 하번 수군(下番水軍), 그리고 경기 각 포(各浦)의 당령 선군(當嶺船軍) 아울러 9천 명을 동원하여 오는 봄부터 시작하여 5개년을 기한하고 쌓도록 하소서."

-『세종실록』 46권, 세종 11년 10월 21일 갑오 4번째 기사-

그렇게 강화 산성은 조선에서 다시 축조된 배경은 고려 때와 유사하게 외세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고려는 몽골의 단기전에 맞서 수도를 옮겼기에 큰 규모로 지었으나, 조선에는 강화도 최북단에 교동 산성을 지어⁶⁾ 해구를 방어하고 있었으며 이민족으로부터의 침략에 대한 위험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여 기존의 내성을 축소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병자호란 당시에 많은 이들이 강화 산성을 최후의 보루, 천혜의 요새라 여겼는데

6) 세종실록 1권, 세종 즉위년 10월 27일 계묘 12번째 기사, 현재의 교동 읍성과는 다르다.

그 이유는, 우선 고려 당시 몽골의 침입 때도 어느 정도 요새, 피난처의 역할을 했으며, 강화도 자체에서 경작이 가능하여 장기전으로 가도 외부의 물자에 의존할 필요는 없었다.

또한 사면이 바다인 점과 유빙으로 인하여 기병이 주력인 청군이 접근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당시 사람들은 강화 산성을 금성탕지(金城湯池)⁷⁾라 칭했을 정도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강화 산성은 반나절 만에 함락됐다. 청군도 강화 산성이 돌파하기 어려운 요새임을 인지하고, 한강 근처의 집을 헐어 목재로 작은 규모의 배를 만들고, 수로는 얼어붙어 육로로 운반한 다음 상륙하였는데, 조선군으로서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 산성에서 불랑기포를 쏘기에는 청군의 이포홍의 화력과 사거리가 더욱 월등하였고, 강화도 지역 자체가 물살이 빨라 판목선을 띄우기에도 부적합해 속수무책으로 당하였다.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다.

“삼가 아뢰입니다. 강화부(江華府)는 천혜의 요새로서 위급할 때 의존할 수 있는 지역인데, 반나절도 채 되지 않아 함락되어 오랑캐에게 유린을 당하였고 종묘사직도 싸늘한 잿더미가 되는 것을 면하지 못하였으니, 말하자니 심히 가슴 아프고 생각하자니 기가 막힙니다.”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정축(1637) 4월 3일(임신)

백성뿐만 아니라 관리들조차 반나절 만에 함락당할 줄 알지 못하였으며, 천혜의 요새가 함락됨에 따라 전황이 매우 불리해짐을 느꼈다.

이렇게 파괴된 강화 산성은 숙종 대에 이르러 유수 허질(許秩)에 의해 고려 시대 내성 규모로 1677년에 크게 고쳐 쌓고 이후 1709년에 강화유수 박권이 중수하였다고 하였지만, 승정원일기, 숙종실록 등을 찾아보아도 허질이 이를 고쳐 쌓고 박권이 1709년에 중수했다는 기록은 없다. 허질의 형이자 영의정 허적이 1671년에 강화도의 형세에 관해 보고하고, 1684년에 대사헌 이민서가 사직하며 강도(강화도)의 형편을 보고하였는데, '고려의 옛 터에 의거해 흙을 쌓아 성을 만들고, 위에도 치첩을 시설하여 화기를 많이 둔다면, 그다지 힘들이지 않고도 강진이 크게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했다.⁸⁾ 이후 숙종은 두 차례에 걸쳐 신하들과 논의하며 기존 고려의 성터를 활용하는 것으로 강화 산성을 축조하였다.

"고려 고종(高宗)이 40여 년 동안 강도에 들어가 토성으로 적병을 방비할 수 있었으니, 이것을 쌓는 일은 단연코 그만둘 수 없겠고, 병자년에 부성(府城)이 있었다면 함몰(陷沒)되지는 않았을 것이니, 내성(內城)도 없어서는 안되겠다.“

-『숙종실록』 22권, 숙종 16년 9월 12일 기해 4번째 기사-

7) 쇠로 만든 성과 끓는 물의 연못이라는 뜻으로, 수비가 쉽고 침공이 어려운 요새를 뜻한다.

8) 『숙종실록』 15권, 숙종 10년 7월 29일 계사 1번째 기사

라며 병자호란 당시 강화 산성이 빠르게 함락된 이유 중 하나로 축소된 내성을 꼽으며 원래 고려 시대 크기로 다시 축조하며 현존하는 강화 산성이 된 것이다. 따라서 허질과 박권에 관한 기록은 다시 확인해야 할 여지가 있다.

이후 영조 대에 이르러 토성이 점차 허물어지니, 벽돌을 구워 개축을 요구하며 편축성이 되었다.⁹⁾

2) 역사적 의의에 관한 고찰

저항을 제외하고 강화 산성, 강화를 논할 때 역사적 의의로는 무엇이 있을까?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강화는 한국사의 중세 시대인 고려를 이해하는데 개경 다음으로 중요한 지역이며, 천도 이전에는 지방이었고, 이후 도읍, 경기로 이어지는 중앙과 지방의 위상을 모두 지녔던 이중적인 공간이었다. 강화 산성은 당시 고려의 성벽 축조 기술이 어떠하였는지를 알 수 있고 내성에서는 다양한 행사나 교류가 있어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고려의 문화를 더욱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또 다른 역사적 의의는 강화 산성이 조선시대에 새로이 축성될 때 나타난 변화로, 이를 통해 조선의 방어체계 변화와 성곽 축조 기법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는 점이다. 조선 전기에는 주적을 왜구와 소규모 북방 민족이라 생각하여 산성보다 평지 읍성을 기본 방어 시설로 하였지만 임진왜란을 겪고, 도성 중심의 방위체제로 변경게 되었다. 광해군은 한양 이외의 중요한 지역으로 남한산성과 강화도를 중시했고, 인조는 이를 수용하여 청나라의 침입 시에는 강화도에서, 왜의 침입 시에는 남한산성에서 막겠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전란 시 국왕은 강화도로, 세자는 남한산성에서 적과 대적하는 것으로 정해졌지만, 청군은 강화도의 전략적 이점을 간파하고 전쟁 준비를 철저히 하였다. 정묘·병자호란은 새로운 방어체계 도입의 필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효종은 강화도를 외곽 방위체제의 주축으로 삼아 일본보다 청을 더욱 경계하였고, 숙종은 한양도성 정비론과 수도권 외곽 방위체제를 병합하여 도성 주변 주요 요충지에 관방 시설을 설치하는 도성 방위체제를 완성하였다. 숙종이 강화 산성에 대해 신하들과 두 차례 논의하고 여러 번 강화도에 대한 형세를 점검한 이유는 조선의 방위체제가 이전과 달리 변화하여 산성 내부에 내성을 쌓고, 주변에 주요 요충지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조선 전기의 강화 산성은 내성을 축소하여 지은 것으로 보아, 여말선초에는 왜구를 주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소탕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산성보다는 평지 성을 더 중요시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정묘·병자호란을 겪으며 주적을 청으로 바꾸면서 방위체제도 변경되었고, 숙종은 강화 산성을 도성 방위체제에 맞게 다시 건축하였다.

9) 『영조실록』 56권, 영조 18년 10월 10일 을미 4번째 기사

2. 군사적 요충지로써의 강화 산성

강화 산성은 강화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 만들어진 산성이다. 그렇다면 강화도의 지형으로써 얻는 군사적 이점은 무엇이 있으며, 이 안에서 강화 산성은 어떠한 기능을 하였는지 살펴보자. 원래 통일 신라 시대부터 강화도는 서해안의 중요한 방어 시설이었다.¹⁰⁾ 산성 축조 이후 군사적 요충지로써 했던 기능은, 고려 시대에는 몽골 군에 대항하기 위하여 산성·해도입보책(山成·海島入保策)을 전국적으로 시행했는데, 이는 몽골 기병의 침입에 효율적으로 맞서기 위해 백성들을 산성 또는 섬으로 입보¹¹⁾시킨 정책이다. 기병의 장점은 빠른 기동성과 습격이나, 이를 위해선 활이나 조총, 칼 등을 정비해 성을 함락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을뿐더러, 산에서는 기동성이 현저히 저하된다. 섬으로 들어간다면 추격이 불가한 점을 이용해 이러한 방어책을 세운 것이다.

몽골도 이를 인지했는지 실제로 강화도를 진입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물론 몽골의 침입 목적은 고려가 금, 남송과의 연합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강화도와 강화 산성을 돌파하기가 어려웠기에 쳐들어오지 않았다는 부분도 있다. 당시 몽골은 배를 이용할 정도로 수전에 능했지만, 청만금의 정교한 대비를 갖추지 않아 유빙과 급류를 극복하지 못했을 것이다. 예성강, 임진강, 한강, 바다가 만나는 강화 해협은 조수 간만의 차가 매우 크고¹²⁾ 고려 시대에는 간척 사업이 크게 진행되지 않아 해안선은 전부 절벽, 산으로 형성되어 있어 병자호란 때와는 달리 상륙이 어려워 끝내 침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군사적 요충지로 부상한 시기는 천도 이후 강도로 승격되었을 때부터로 추정되며, 정치적 중심지로도 거듭난다. 또한 환도 이후 카다안(哈丹)이 침입해 왔을 때 충렬왕이 강화도로 피신했다는 기록으로 보아¹³⁾ 강화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 강화도 전역에 설치한 방비 체계는 진(鎭)·보(堡)·돈대(墩臺)를 기본으로 구성하였고, 이들은 해안을 따라 늘어선 방어 시설이다. 둘레가 수백 미터에 이르는 대형 요새인 진(鎭)이 5곳, 이보다 조금 작은 보(堡)는 7곳, 해안 요충지마다 촘촘히 자리 잡은 둘레 수십 미터 크기의 작은 요새인 돈대(墩臺)가 53곳으로 5진 7보 53돈대 체계를 구축한다. 육지로부터의 적을 방어해야 할 때는 육지와 맞닿은 강화 해협에 수비가 집중되었고, 조선 말기 서양 세력이 배를 타고 침입해 올 때는 포 사격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요충지에 포대가 추가되기도 하였다. 강화도가 침입을 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외세의 침략을 받는 이유는 수도인 한양으로 바로 가기 위함으로 볼 수 있는데, 강화 해협은 계속해서 변하고 물살이 빠르지만, 한강과 연결되어 있어 강화 해협만 지나면 한강을 타고 한양에 정박할 수 있었으며, 섬에서 농사를 할 수 있어 농업이 활발했다. 주변 해역에서 해산물도 잡혀 외부의 식량 보급에 의지할 필요가 없어 군사를 유지할 수 있고, 가장 높은 곳에서 먼 거리까지 보이기 때문에, 적의 침입이나 군세 등의 확인이 수월

10) 문성왕이 신라 하대의 군진 중 하나인 혈구진을 강화에 설치했기 때문이다.

11) 보(堡) 안에 들어와 보호를 받다.

12) 이 때문에 갯벌이 형성되고, 진흙에 빠져 강화 천도 당시 많은 사람이 죽었다.

13) 『高麗史』권30, 세가 30, 충렬왕 16년 11월.

하다.

정리하자면 군사적 요충지로서 강화 산성은 산성·해도입보책을 수행하기 위한 기지였으며, 강화도는 중요한 해상 교통로이자 한양으로 오는 외세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한 방어선 역할을 담당했다.

III. 결론

본 연구를 통해 강화 산성이 단순한 군사 요새를 넘어, 고려와 조선 시대의 정치·군사 체제 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상징적 공간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강화도는 고려 시대의 정치·경제 중심지로서 개경의 대안적 수도 역할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축조된 강화 산성은 당시 국가의 위기 극복과 체제 유지를 위한 군사적·문화적 대응의 산증인이었다.

첫째, 강화 산성의 축조 배경과 그 전개 과정은 고려의 혼란, 무신정권의 등장, 그리고 몽골 침입이라는 외세의 위협 속에서 국가 체제가 내포한 모순과 권력 집중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다. 최우가 강화도로 천도하게 된 배경은 단순히 외세의 위협을 넘어서, 당시 정치 세력 간의 갈등과 권력 유지의 도구로서 산성 건설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에 반해, 조선 시대에 들어 강화 산성이 재축조된 과정은 초기에는 왜구 등 소규모 외적 위협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정묘·병자호란 등 대외적 침입 사건을 계기로 방위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내성 확충을 요구하는 정치·군사적 변화를 반영하였다. 이처럼 강화 산성은 시대적 요구와 정치 상황에 따라 축조 양식과 기능이 변화하며, 국가의 방위 전략 및 군사 건축 기술의 진화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

둘째, 강화 산성의 군사적 요충지로서 기능은 그 지리적 특성과 결합하여 외세의 침입에 대항하는 효과적인 방어체계의 한 축을 이루었다. 강화도는 해상 교통로와 육상 방어선의 요충지로서, 자연 지형이 제공하는 방어적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소였다. 특히 당시에는 섬이었던 강화도는 외부 세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산성과 연계된 산성·해도 입보책을 통해 백성의 피난처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투 상황에서는 예상치 못한 기후와 지형적 한계, 그리고 적의 기동전략에 의해 요새가 단기간 내에 무너지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방어체계의 한계를 드러내며, 시대별 군사 전략의 복잡성을 시사한다.

셋째, 강화 산성 연구는 단순한 군사적 또는 건축적 분석을 넘어, 고려와 조선 시대의 문화적·사회적 양상까지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 연구가 요구되는 분야임을 드러낸다. 강화 산성이 지닌 역사적 의미는 천도와 방어의 기능뿐만 아니라, 비록 무능한 무신들이 사치와 향락에 빠져 문화적 행사들을 연속적으로 진행했지만, 이를 고려의 문화사적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다층적인 기능을 통해 당시 사회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연구가 관광 개발이나 복원에 집중되어 있

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강화 산성을 한국 중세사의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재조명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강화 산성이 단순한 방어 시설을 넘어, 고려 말과 조선 초의 정치적 혼란, 외세 침입에 대한 대응, 그리고 그에 따른 군사·건축 기술의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조명함으로써, 고려와 조선의 세세한 차이점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강화 산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앞으로 국가의 역사와 문화유산 보존, 그리고 조선의 군사 전략 발전 과정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향후 강화 산성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더불어, 당대 사료 및 강화에 현존하는 약 80개의 유적을 바탕으로 한 분석을 통해 그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보다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강화 산성은 고려의 위기 극복과 조선 초기의 방위체제 재정비를 통해 국가의 존속과 체제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한 역사적 요충지임과 동시에, 지리적·군사적 이점을 기반으로 외세 침입에 맞서 싸웠다.

참고 자료

- 홍영의. (2005, 3). 왜? 고려 최씨 정권은 왜 강화로 천도했을까?. 내일을 여는 역사,(19), 140-157.
- 이희인. (2018). 고려시대 강화의 고고 유적과 공간 구조. 한국중세고고학,(4), 59-81.
- 이익주. (2018). 고려-몽골 전쟁 초기(1231~1232)의 강화 협상 연구. 한국사연구,(180), 1-31.
- 강재광. (2018). 대몽전쟁기(對蒙戰爭期) 강화천도(江華遷都)의 외교적 배경과 경기도 권역의 군사적 대응. 역사와현실,(109), 105-145.
- 라경준. (2020). 조선후기 성곽 축조 기법의 변화. 한국중세고고학,(8), 145-170.
- 박영순. (2004). 강화산성(江華山城)과 고려궁지(高麗宮址). 국토,, 135-135.

국가유산포털 - 강화산성

https://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ccbaKdcd=13&ccbaAsno=01320000&ccbaCtcd=23&pageNo=1_1_1_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강화산성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1518>